



고대구로병원뉴스

NO. 115

September 2016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9월 29일 월간

KU MC 권역응급의료센터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 일 시 : 2016년 9월 27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중증응급환자 치료위한 최적의 인프라, 의료진, 시스템 구축
권역 내 응급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강화해 국민건강증진 기여할 것



고대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이 9월 27일(화) 오후 2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 구로구청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양혁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외부인과 김효명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은백린 구로병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프커팅, 센터 투어를 비롯한 개소식과 성공적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정착을 위한 고견을 나누는 심포지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고대 구로병원은 그 동안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 서남부 권역 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의료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숙련된 응급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중증외상팀을 비롯한 여러 전문 진료과와의 유기적인 협진시스템과 응급전용 중환자실/수술실/병상, 헬리포트 등을 갖춰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선진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며 선제적으로 구축했던,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감염 격리진료실을 확장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재난 극복 메카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고대 구로병원은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존 응급실을 내원환자

의 중증도에 따른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중증환자구역, 일반환자구역, 경증환자구역 등으로 분류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감염병 환자로부터의 일반환자 노출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원천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중증화상환자 전용 중환자실 병상을 운영하는 등 취약환자까지 배려하고 있다. 또한 응급전용 수술실 1개, 중환자실 20병상, 일반병실 30병상을 확보하는 등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이강현 협회장, 권역응급의료센터협회), ▲이상적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윤한덕 센터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의 해외사례 및 우리의 미래(윤영훈 교수,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병원 전시스템(정재석 팀장, 구로소방서 구급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은백린 구로병원장

은백린 구로병원장은 식사에서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를 계기로 구로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응급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로병원은 1983년 개원 당시 민족과 박애의 이념 하에 의료불모지로 불리던 구로지역에 뿌리내렸고, 이후 33년의 시간동안 그 신념을 지켜오며 환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명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격려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며 구로병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축사에서 "고대 구로병원은 지역 내 든든한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며 항상 주민과 함께 해왔다. 구청장으로서도 지역 내에 고대 구로병원 같은 병원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여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응급환자 케어를 위한 인프라, 인력,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지역 소방서,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지역주민을 넘어 전국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효명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 구로구청장

친절이 웃는 병원을 만든다

칭찬열차 100호 포상 및 핵심친절리더 6기 출범식

고대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은 8월 30일 직원식당 회의실에서 칭찬열차 100호 주인공을 선정하고 핵심친절리더 6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은백린 병원장을 비롯한 채성원 진료부원장, 이강희 경영관리실장, 이용규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을 비롯한 일반 부서장 및 핵심친절리더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2008년 6월부터 시작해 동료 직원들에게서 칭찬을 주고받으며 친절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칭찬열차는 이 달로 뜻 깊은 100호를 맞이했으며, 그 주인공에는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재무팀 김현숙 대리, 응급의료센터 나지선 책임간호사가 선정되어 시상식에서 각각 롯데호텔 숙박권이 부상으로 전달됐다.

핵심친절리더 5기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핵심친절리더에서 진행했던 칭찬열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굿데이 캠페인, 월간 CS 발간, 음악회 등 보다 친절한 교직원과 따뜻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이뤄졌던 활동들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팀장 인사에서 성명숙 수간호사는 "그 동안 여러 핵심친절리더 활동을 함께 있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핵심친절리더 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핵심친절리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핵심친절리더 6기 팀장에 선정된 영상의학과 최인호 부팀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그간의 핵심친절리더의 활동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책임감을 짊어지고 최선을 다해 핵심친절리더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은백린 병원장은 "바쁜 병원 업무 이외에 병원을 위한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는 핵심친절리더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친절이 병원 전역으로 퍼져나가 전 직원이 칭찬열차에 탑승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막바지에 이뤄진 하루 종일 굿데이 행사에 은백린 병원장과 채성원 진료부원장이 직접참여해 식사를 마친 교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나눠주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교직원은 "병원장님이 직접 친절 캠페인을 외치시면서 솔선수범을 보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환자와 교직원들 간의 친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 및 진료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선발된 22명과 함께 출범했다.



이달의 MD

가쁜한 진료, 시원한 의사 비뇨기과 문 두 건 교수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문제의 이면에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국가재건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1990년대 후반 IMF사태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이겨낸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은퇴로 노인남성들은 그 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미뤄왔던 건강과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한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사회적 이슈로 까지 번지고 있으며 특히, 남성 5대 암 중 하나인 전립선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32%로 꾸준히 증가하는 전립선 비대증 등의 비뇨기질환은 노인남성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문두건 교수는 남성성기능과 남성갱년기의 대가로 현재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아시아태평양성의학회 및 아시아태평양 남성갱년기학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문 교수는 성인아간뇨의 치료개념을 정립한 국제적인 권위자이며 연구개발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이 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확대술을 개발해 국내·외 성기능장애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필러를 이용한 소아방광요관역류의 내시경수술치료에도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다.

비뇨기과는 소변을 만들어 운반하고 배설하는 요로계와 남성 생식기관, 부속 성전 및 부신에 생기는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는 30여 년 동안의 풍부한 연구력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질환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 교수는 전공의시절부터 기초실험연구를 통한 SCI논문과 90년대부터 전임교원이 아님에도 국제적 연구비수주등 다양한 이력을 있으며, 세계적인 재생의학연구기관인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에서 연수이후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재생의학연구소장으로서 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지정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구로병원의 로봇수술센터장으로서 최상의 첨단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는 비뇨·생식 계통의 다양한 질환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남성의학 ▲소아비뇨 ▲요로감염 ▲요로결석 ▲요실금·배뇨장애 ▲전립선 ▲혈뇨·비뇨기종양 ▲요로생식기 기형·손상·재건 등 8개 특수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그린라이트 XPS' 레이저 수술 100례를 달성하는 등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진료 인원은 2010년 77만 여명에서 2014년 101만 여명으로 32% 늘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60% 이상의 유병율을 나타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전립선의 크기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그린라이트 XPS 레이저 수술은 수술위험도가 높아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는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치료효과를 높이고 출혈 및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로결석에 관한 경피적 신질석술부터 체외충격파와 함께 연성요관경까지 손꼽히는 결석치료, 소아비뇨기질

환 영역에서는 소아방광요관역류에서의 내시경적 치료, 여성 비뇨기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오미미 교수와 채지윤 교수가 포진해 여성특화진료에도 앞장서고 있어 환자들의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맞춤진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 교수는 구로병원을 환자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병원이라고 자부한다. 그도 그럴 것이 환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를 동네아저씨 같은 교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문 교수에게 진료 및 수술에 대한 만족스러운 후기나 관련 글을 볼 수 있다. 고대 구로병원 특유의 사람 중심의 진료와 가치추구가 환자들의 만족스러운 진료, 주변에 추천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어지는데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희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저의 교과서입니다. 환자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시는 그들만의 질환과 이야기들을 모두 귀담아들을 수 있는 가족 같은 의사, 친근한 진료가 환자분들의 질환을 이겨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는 암질환에 대해서도 특화된 진료를 보여준다. 2014년 개원한 암병원의 비뇨기암센터는 중년 남성들에게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전립선암을 다루고 있으며, 환자의 5년 평균 생존율이 90% 이상, 암 수술 후 요실금, 성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성공률을 높여 전립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 호평을 받고 있다.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직장 등 주변장기와 밀접해 있는 전립선의 주변에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절개부위가 넓어 출혈 등의 위험이 있는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절제술에서 로봇수술이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로봇보조 복강경 전립선절제술의 경우 확대된 시야에서 정밀한 로봇팔로 수술이 이뤄져 개복수술에 비해 출혈 등 합병증 비율을 낮춰 초기 회복율이 빠르고 수술 후 재원기간도 줄일 수 있어 빠른 일상생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술·담배

담배는 왜 나쁠까요?

담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타르(발암물질), 니코틴(중독성), 일산화탄소(피로감) 등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흡입시에 50ml 정도가 흡입되며,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이 90%, 타르 70% 정도가 인체에 잔류하여 독성을 일으킵니다.

금연하기는 왜 어려울까요?

- 니코틴 중독의 금단증상
땀이 많이 나거나 불안정, 두통, 설사, 변비, 갈증, 어지러움증 등이 나타납니다.
- 정신적 의존성
심리적으로, 흡연은 육체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안락감이나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까요?

1개피	20개피	1년에	10년에	50년에
5분 30초 단축	2시간 단축	1달 단축	1년 단축	5년 단축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 조직으로 가는 산소를 차단시켜 심장발작, 뇌졸중, 유산, 사산 등 유발
- 콜레스테롤 증가
- 신경 및 신장합병증 발생 증가
- 말초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발의 궤양과 염증 야기
- 감기나 폐질환 발생 증가
- 보행 및 관절 움직임의 장애 증가
- 구강, 인후, 폐, 방광 등에 암 발생률 증가
- 심혈관질환 증가
- 혈압 상승

금연 유지법은?

- 담배를 피우고 싶어질 때
 - 바른자세로,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합니다.
 - 물을 마십니다.
 - 산책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합니다.
 - 금연하기로 한 결심을 다시 새겨 봅니다.
 - 담배를 권하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금연상담전화 국번 없이 1544-9030

- 흡연욕구를 없애기 위해
 - 생수를 한 컵 마십니다.
 - 심호흡을 합니다.
 - 산책을 합니다.
 -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 100부터 거꾸로 세어 봅니다.

- 양치질을 합니다.
- 냉, 온욕을 합니다.
- 얼음을 입안에 넣어 봅니다.
- 미역줄기를 씹어 봅니다.
- 무가당 껌이나 은단을 씹어 봅니다.
- 결단한 나의 선택을 반복합니다.

금연하는 방법은?

금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집안이나 직장에 있는 담배, 라이터, 재떨이 등을 치우고,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피우지 않을 때의 좋은 점을 생각해 봅니다.

- 니코틴 대체요법
니코틴 패치나 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육체적으로 중독된 사람에게 효과적이지만 간혹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니코틴 패치를 뗄 때까지 꼭 금연 하도록 합니다.
- 금연 학교에 참가
- 최면
- 금연침
- 자신의 의지

술(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 알코올은 열량만 많이 내고 (1그램=7칼로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 혈당조절이 잘되는 당뇨인의 경우, 소량의 음주시 혈당이 그다지 상승하지는 않지만 술에 함유된 첨가물에 의해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은 간에서 몸에 필요한 포도당 생합성을 억제하므로 저혈당에 빠지기 쉽습니다.
-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있어 저혈당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저혈당 발생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이나 순환기장애가 있는 당뇨인들에게 고지혈증 특히 고중성지방혈증과 간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설폰요소제의 경구혈당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의 작용을 강화시켜 오랜 기간에 걸쳐 술을 마시면 경구혈당강화제의 분해가 빨리 일어나서 약효가 줄어 듭니다.

술은 마실 수 있나요?

당뇨인이 음주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음주 전 반드시 주의의와 상담한 후 소량 마시도록 합니다.

고지혈증, 특히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신경손상, 동맥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절대 주의 해야 합니다.

-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경우
- 표준체중인 경우

- 당뇨병성 합병증이 없는 경우
- 간질환, 췌장질환이 없는 경우
- 권장량만 먹을 의지가 있는 경우

술의 종류에 따른 알코올의 함량

종류	알코올농도 (%)	음주형태	
		잔크기(mL)	열량(칼로리)
생맥주	4	500(1잔)	190
안동소주	45	50(1잔)	125
고량주	40	50(1잔)	115
포도주	12	50(1잔)	110
위스키	40	50(1잔)	90
막걸리	6	200(1잔)	90
맥주	4	200(1잔)	75
소주	25	50(1잔)	70

술은 얼마 만큼 마실 수 있나요?

미국의 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술의 하루 권장량은 남자는 두잔, 여자는 한잔 정도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당뇨인은 음주가 가능한 경우라도 일주일에 1~2회, 1회에 1~2잔 정도만을 허용합니다.

음주 시의 주의점은?

- 공복 시에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 두 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 천천히 마십니다.
-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마십니다.
- 약물 복용 중에는 금주합니다.
- 주에 2회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 갑자스런 저혈당 증세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전·후 혈당검사를 합니다.
- 알코올은 마신 후 8~12시간까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술 마시러 갈 때는 반드시 당뇨인임을 나타내는 당뇨병 인식표나 팔찌, 목걸이 등을 지참합니다.
- 밤 12시 이전에 끝내고, 과음한 다음날에도 일상생활(혈당검사, 식사, 운동)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진, 럼, 위스키, 브랜디, 소주 등의 증류주를 마실 때는 지방군과 교환하여 줄이고, 당질이 함유된 맥주, 포도주, 막걸리, 청주는 곡류군과 지방군에서 교환하여 줄여 먹습니다.
- 소주1잔 = 지방군2교환

글, 원내기자 이혜림 간호부
출처 : 당뇨병 관리 길라잡이 (KADNE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문의 : 당뇨교육실 (02-2626-1091)

생생건강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말벌 공격 생명에 지장 있을 수 있어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한 날씨에 가을철 단풍놀이, 등산 등 야외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진드기 또는 말벌 등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야외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진드기에 물려 전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며, 두 질병 모두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으로써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진드기에 의해 전염이 된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면 보통 1~2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구토, 설사, 림프절 비대,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만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꿀벌보다 2배 이상 큰 말벌은 독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한번 쏘이면 두통이나 현기증, 부기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증세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전신 가려움증 및 두드러기, 부종, 어지럼증, 구토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저혈압, 호흡장애, 실신 등을 동반한 쇼크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다.

고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조영덕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레에 물리거나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위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 즉시 주위 사람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응급의학과 조영덕 교수)



집안일 많은 40~60대 여성 '손목터널증후군'에 가장 취약

계속되는 통증에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통로가 여러 원인에 의해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아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환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총 환자 수 16만 7천여 명 중, 남자 3만 7천여 명, 여자 12만 9천여 명으로 여자 환자의 수가 월등히 높았다.

특히, 50대 여성은 5만 6천여 명으로 총 환자 수의 34%나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 여성은 15% (만 4천여 명), 60대 여성은 14% (만 3천여 명)를 차지해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 중년층 여성이 취약함을 시사했다.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문준규 교수는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할수록 증세가 악화돼 자다가 잠에서 깬 정

도로 심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만일 통증과 저림 증상이 지속되고 손가락 마비 증세가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증상이나 신체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경추 디스크와 감별이 필요하며 근전도 검사가 확진에 도움이 된다.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휴식, 소염제 등의 약물치료, 부목 고정 및 주사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방법이 실패하거나 근력의 약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정형외과 문준규 교수>

고대 구로병원-금천구청 업무협약 체결



고대 구로병원은 9월 1일 11시 금천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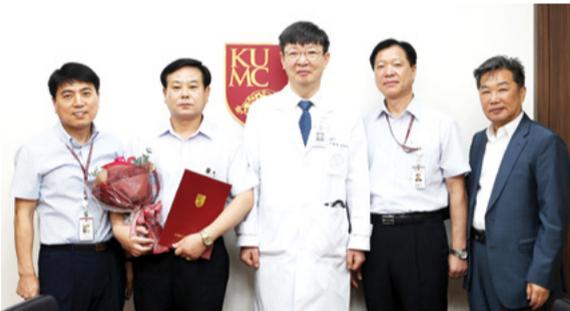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은백린 병원장을 포함한 고성범 진료협력센터장, 이강희 경영관리실장, 이용규 간호부장, 김진태 총무팀장, 서일수 진료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술 홍보를 위한 협약이 이뤄졌다.

은백린 병원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작년 메르스 사태를 충실히 이겨냈던 만큼 서울 서남부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준비된 의료 인프라와 헌신적인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금천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역 및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고대 구로병원과 업무협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금천구는 어느지역 보다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협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연구중심병원 재지정을 거치면서 구로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울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대표 삼급 종합병원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안전한 병원 안전요원실이 책임진다



고대 구로병원은 8월 19일 행정동 3층 접견실에서 적극적인 근무 자세와 도난사고를 예방하는데 솔선수범한 안전요원실의 공로를 인정하고 표창했다.

지난 12일, 안전요원실 근무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를 사칭하고 두문불출한 내원객을 수상히 여겼고, 끈질긴 추적 끝에 용의자를 검거해 구로경찰서에 인계하면서 절도범으로 기소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한상국 안전요원은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로 절도 의심자 검거에 앞장섰으며, 김용남, 엄태경, 이건우, 원용찬 안전요원과 실시간으로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혹시 모를 도난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은백린 병원장은 "철저한 보안 및 관리로 환자 및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진료뿐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전과 서비스를 갖춘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韓 최초 전립선비대증 '그린라이트 XPS' 100례 달성



고대 구로병원 비뇨기과 문두건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전립선비대증 '그린라이트 XPS' 레이저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그린라이트 XPS'를 도입한 고대 구로병원은 가장 먼저 100례를 달성하며 비뇨기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린라이트 XPS'는 현존 최신 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치료기기로 180W의 고출력으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짧은 시간 내에 기화시켜 제거함으로써 기존 수술에 비해 요도 손상을 비롯한 후유증이 적고, 출혈과 통증도 적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술 위험도가 높아 약물 치료에만 의존해야했던 80대 이상 고령 환자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환자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도 기존 전립선절제술과 비교해 절반정도로 짧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문두건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100례를 달성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수술 결과 전립선절제술은 물론 기존 레이저 기기와 비교해서도 치료 효과는 높으면서도 출혈 및 후유증이 적어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특히, 수술 위험도가 낮아 80세 이상 환자도 성공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생하는 고령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 우수부서에 63병동, 통증클리닉 선정



고대 구로병원은 8월 25일 행정동 3층 접견실에서 2016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식을 가졌다.

수상 부서로는 63병동과 통증클리닉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부서별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이 전달됐다.

은백린 병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두 부서의 우수한 마약류 관리 능력과 의지가 타 부서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마약류 관리 우수부서 포상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우수 부서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 2016 호스피스 사랑나눔 바자회 성료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회장 최윤선)는 9월 26일 '2016 호스피스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호스피스 바자회에서는 교직원과 복지관 등 지역 주민들의 후원으로 기증받은 의류, 잡화,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들을 마련해 풍성한 기부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날 수익금 전액 200만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호스피스 병동 운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윤선 호스피스회 회장은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해 주신 교직원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작은 정성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백린 병원장은 "매년 지역사회와 교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지는 건강한 기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나눔의 장이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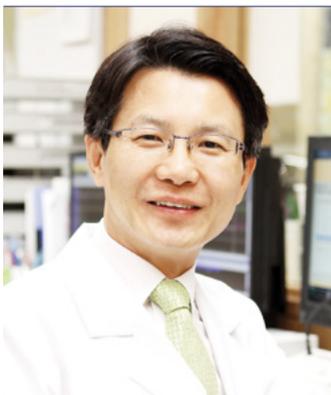
한편,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는 2007년부터 매년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지원과 병동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환자와 교직원들에게 건강 기원 송편 전달로 화기애애



고대 구로병원은 9월 13일 본관 로비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은백린 병원장을 비롯한 고성범 진료협력센터장, 이강희 경영관리실장, 이용규 간호부장 및 핵심진절리더가 직접 로비와 병동, 외래구간을 방문해 환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내원객 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 있는 교직원들에게도 송편 나눔이 이뤄지면서 풍요로운 추석 인사말이 오갔다.



고대 구로병원 박창규 교수, 2016 유럽심장학회 콘그레스에서 좌장 및 우수 포스터 구연발표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창규 교수팀은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2016 유럽심장학회 콘그레스(ESC Congress ROME 2016)에서 좌장 및 우수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콘그레스에서 박창규 교수는 고혈압 최신치료 세션에서 좌장으로 활약했으며, 약물, 대사 세션에서 '고혈압 치료가 면역노화세포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hypertension treatment on immunosenescence parameters)'이라는 논문으로 우수 포스터를 발표했다.

박창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고혈압 치료가 인체 면역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면역노화가 진행되는 고령 환자의 고혈압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창규 교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고혈압 전문학술지인 고혈압연구(Hypertension Research) 편집고문과 국제 전문학술지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SO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저널의 편집위원, 2016 세계고혈압학회 등록위원장 등 국제적인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4월 어느 봄날



4월 어느 봄날의 일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끝날 무렵쯤 전화 한통이 울렸다.



그 전화는 원내 전화였고 전화 상대방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유선상이라서 인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이제야 숨 좀 돌리나 싶을 때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이지 기분이 좋지 않고 가라앉는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일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이 너무나 비밀비재 하게 일어난다. 그 동안 이런 상황에 익숙해 지다보니 무뎠던 듯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선상이든 아니든 서로간의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나는 3월이 되면서 친절리더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회의도 참석하고 캠페인 활동도 했다.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지하 식당에서 맛있는 간식 주는 날이라고만 생각했다. 나 말고도 다른 신규간호사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나처럼 생각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부터 먼저 바뀌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 부끄러운 행동들이 스쳐지나갔다.

"내가 먼저 인사한다."
솔직히 먼저 인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내가 인사를 하면 날 어떻게 생각 할까가 먼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기에 먼저 인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를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나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뀌고 직원들 간에 웃으면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외부고객 친절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뇨기과 신보람 책임간호사

구로병원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옛 것을 소개하는 코너

33년의 철저한 의무기록 관리, 환자중심병원의 근간이 되다.



의무기록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인 문서로 환자에게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며, 바쁜 의료진에게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개원과 함께 의무기록을 전담하는 의무기록실을 운영하며, 초대 의무기록위원장으로 '의무기록 관리 및 작성지침'의 기틀을 마련한 외과 황정웅 교수, 현재는 이비인후과 채성원 교수의 주도하에 의무기록 작성 우수부서 및 전공의 포상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의무기록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의무기록을 정보로서의 가치를 향상시켰으며, 2016년 9월 24일에는 기존의 EMR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차세대 EMR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차세대 EMR을 이용한 의무기록 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환자진료 제공을 기대해 본다.



구로병원 교직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ghhong@kumc.or.kr

칭찬열차



100호 칭찬열차 주인공
부교수 산부인과 조 금 준
항상 친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밝은 목소리와 표정으로 응대를 해주십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굿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 칭찬하고 싶습니다.



100호 칭찬열차 주인공
책임간호사 응급실 나 지 선
바쁘고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씀 해주십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모습으로 업무 협조를 해주는 나지선 선생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100호 칭찬열차 주인공
대리 재무팀 김 현 숙
업무 상 잦은 문의를 하게 되어도 그때 마다 성심 성의껏 응대 해 주시는 선생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칭찬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09 September 2016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7일 금연
 · 14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21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8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1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8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15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2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신장내과강좌 02.2626.1791
 · 22일 만성콩팥병의 이해와 관리

ADHD 부모교육 02.2626.1230
 · 20일 *ADHD란 무엇인가
 · 27일 *ADHD의 약물치료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여 참여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2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5	6	7	8	9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12	13	14	15	16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19	20	21	22	23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대강당 1층 의생명연구소
	ADHD 부모교육	수요웰빙강좌	당뇨교육	신장내과강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
26	27	28	29	30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ADHD 부모교육	수요웰빙강좌		
	오전 10시	오후 2시		

10 October 2016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5일 금연
 · 12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19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6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6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13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20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7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신장내과강좌 02.2626.1791
 · 13일 신장 이식과 복지

ADHD 부모교육 02.2626.1230
 · 4일 *좋은 부모되기 첫걸음 : 부모역할훈련
 · 11일 *좋은 부모되기 : 의사소통
 · 18일 *좋은 부모되기 : 보상기법
 *담당 교수님과 상의하여 참여

간질환강좌 02.2626.1030
 · 11일 간질환

골다공증강좌 02.2626.1200
 ·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 기념 건강강좌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3	4	5	6	7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ADHD 부모교육	수요웰빙강좌	당뇨교육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2시	
10	11	12	13	14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대강당 1층 의생명연구소
	ADHD 부모교육	간질환강좌	당뇨교육	신장내과강좌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2시	오후 2시
17	18	19	20	21
	암병원 8층 소회의실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대강당 1층 의생명연구소
	ADHD 부모교육	수요웰빙강좌	당뇨교육	골다공증강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4시
24	25	26	27	28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수요웰빙강좌	당뇨교육	
		오후 2시	오후 2시	
31				

쉽고 편한 병원이용 TIP



고대 구로병원 가정간호 서비스

가정간호란?

가정간호란 퇴원 후 환자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때 담당 주치의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수액/각종 튜브관리/ 상처 및 욕창 치료/말기암 환자 증상관리(호스피스케어) 등
-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뇌질환, 당뇨, 척수손상, 심·폐질환, 암)
-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영양장애, 상처관리, 봉합선 제거)
- 말기 질환자, 노인환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신청

입원 환자 : 담당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외래 환자 : 해당 진료과 진료의에게 신청
 타병원환자 : 타병원 진료의뢰서 가지고 해당과 외래진료 후 신청

문의

가정간호사업실
 ☎ 2626-1608, 1609

